

“뜻을 세우는 일이 문장을 엮는 일보다 어려운 법이다”

옛 사람들이 생각한 좋은 글의 조건...

사물의 본질 꿰뚫는 안목이 옛 문장론의 요체

정 민 | 한양대 국문과 교수

옛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이 튼실하면 글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여겼다.

문장의 수사나 표현의 아름다움은 말단의 기술일 뿐이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교육은 서구의 형식주의 작문이론에 기대 글쓰기 기술만 전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알맹이 없이 좌충우돌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글이 난무하게 됐다.

“글은 뜻에 바탕을 두고 법에서 이뤄진다”는 신 완의 말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박충원(朴忠元)은 글을 지을 때 초고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고는 종이 한 장을 찢고, 혹 점 하나를 엮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며, 꺾어진 획을 쓰거나, ‘비록 그러나(雖然)’라는 글자나 ‘오호라(嗚呼)’ 같은 글자를 쓰기도 한다. 그런 뒤에 또박또박 시험 답안지에 쓰는데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말하기를, “무릇 글을 지을 때 어려운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다. 문자에 이르러서는 붓 아래 있다”고 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오는 이야기다.

글쓰기 기술만 전수하기 바쁜 학교의 작문교육

박충원은 어려운 것이 뜻을 세우는 일이고, 문장을 엮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고 했다. 뜻을 세우는 것은 주제를 정한다는 말이고, 문장을 엮는 것은 이른바 글의 구성을 말한다. 마음 속에 정해둔 생각이 분명하면 글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초·중등학교 때는 물론, 대학입학을 위해 논술고사도 치르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작문교육을 받았음에도 우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좀체로 향상될 줄 모른다. 나는 이 점이 늘 궁금하다.

학교의 작문교육은 좀체 변할 줄 모른다. 1930

년대 이후 서구의 형식주의 작문이론이 여전히 허물 수 없는 강고한 틀로 작용하고 있다. 서사·묘사·설명·논술의 4분법으로 글을 분류하고, 두괄식·미괄식을 따지고, 연역법과 귀납법을 운위한다. 정의법과 예시법을 이야기하고, 비교와 대조를 가르친다. 글쓰기의 원리는 접어 두고, 뜻만 세워지면 붓 아래 있을 글쓰기의 기술만 전수하기에 바쁘다.

옛날 과거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보면 오늘날 논술시험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 질문부터가 다층적이었고 한꺼번에 복합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거가 되는 경전 내용을 줄줄이 꿰고 있어야 했고, 당대의 현안을 통찰하는 폭넓은 안목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그 답안지를 보면 옆에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벌려놓고 쓴 학술논문처럼 인용도 풍부하고 논리도 정연해서 어느 한 구석 빈틈이 없다.

옛 사람들은 이런 작문 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 교과과정에 특별히 작문시간이 있지도 않았고, 귀납법·연역법이니, 두괄식·미괄식이니 하는 교육은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대학 신입생들의 논술고사 답안지 표정을 두고 횡설수설형, 자아도취형, 노상방뇨형, 비분강개형 등으로 분류한 글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

다.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알맹이 없이 좌충우돌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머리 속에 든 것이 없는데, 무조건 쓰라고 하니 논술학원에서 주위들은 관련도 없는 배경지식이나 나열하고, 허세를 부려 목청을 높이다 보니, 노상방뇨도 되고 비분강개도 되고 하는 것이다.

옛 작문교육의 목표는 활법의 획득

문제는 생각하는 힘에 있다. 생각하는 힘이 튼튼하면 글은 저절로 따라온다. 옛 문장이론 속에는 글쓰기의 기술에 해당하는 수사적 방법들에 대한 논의도 물론 적지 않다. 이른바 ‘편장자구’(篇章字句)를 구성하는 원리인 ‘정법’(定法)에 대한 언급이 풍부하다. 그러나 정법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고,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에 응해 적용하는 능력인 ‘활법’(活法)의 획득에 작문교육의 목표를 뒀다.

법이란 글을 글답게 만들어 주는 원리다. 법이 있으면 글에 ‘생룡활호’(生龍活虎)와도 같은 힘이 생겨나고, 법이 없으면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글이 되고 만다. 물에 물결이 있고, 바람에 바람결이 있고, 나무에 나뭇결이 있듯, 글에도 결이 있다. 결이 없는 글은 법이 없는 글이고, 법이 없는 글은 죽은 글이다. 정법이 기승전결의 구성과 같은 정형화된 형식이라면, 활법은 한편의 글

에 질서와 힘을 부여해주는 뼈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변화요기체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신 완(申完)은 “문장이라는 것은 말인데도 법이 있다고 한다. 문(文)이라는 것은 말이고, 장(章)이라는 것은 법이다. 사람은 반드시 뜻이 있는 뒤에야 말할 수가 있고, 말은 반드시 법이 있는 뒤에야 글로 지을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글은 뜻에 바탕을 두고 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글쓰기에서 항상 뜻을 강조했기 때문에, 옛 문장론은 법보다는 도(道)나 그 도를 문면에 실행시키는 기(氣)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문장의 수사나 표현의 아름다움 따위는 말단의 기술일 뿐이라고 여겼다. 심지어 송나라의 주돈이는 글은 도를 실어나르는 수레와 같다고 보고, 수레는 짐을 잘 실어나르는 것이 중요하지, 바퀴의 장식이 화려한가 화려하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물며 물건을 신지 않은 빈 수레는 존재가치도 없다고 봤다.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문체반정

글에는 정신이 담겨 있다. ‘문여기인’(文如其人)이라 해, 글은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한 시대의 글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정조는 당시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소설투의 폐관소품체를 젊은 학자들이 즐겨 읽고, 그것을 흉내내 글을 짓는 것에 질색을 했다. 임금이 직접 문체를 바로잡겠다고 두 팔을 걷고 나서서 이른바 ‘문체반정’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해 나갔다. 폐관소품체를 쓰기만 하면 임금 앞에 불려가 반성문을 썼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과거 합격을 취소하고 귀양까지 보냈다. 일찍이 다른 나라에서는 달리 예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글쓰기는 단순히 작문상의 개인 취향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옛 문장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옛날을 배우는 방법과 태도를 둘러싼 문제였다. 제자백가의 선진양한(先秦兩漢) 고문만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대가 너무 동떨어지니 당송 고문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람들

도 있었다. 이 두 집단들은 서로를 진짜 고문이라 주장하면서 진짜 가짜 논쟁을 지루하게 벌였다.

그러자 명나라 때 문장가 원평도(袁宏道)는 “천하에 백년이 태도 변하지 않는 문장이란 없다”고 단언했다. 진한(秦漢) 고문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당송 고문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옛 글을 배우려 애쓸 것이 아니라 지금 글을 쓰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변화의 당위를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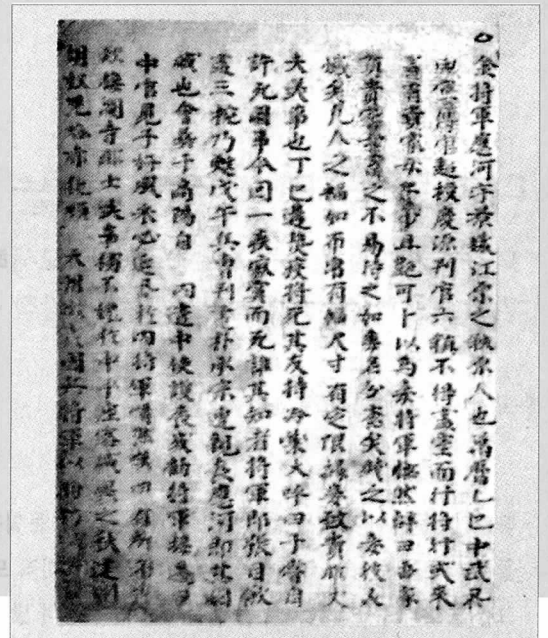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한 유(韓愈)의 유명한 ‘사기의(師其意) 불사기사(不師其辭)’의 주장이 새롭게 음미됐다.

옛글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데 어떤 옛글을 배워야 하는가? 제자의 당찬 물음에 한 유는 그 정신을 본받고, 그 표현은 본받아서 안된다고 했다.

정신을 본받는 것은 원리를 본받는다는 말이다. 표현을 본받는다 것은 껍데기를 흉내낸다는 말이다. 한 신(韓信)은 산을 등지고 물에 앞에 두고 진을 쳐야 한다는 병법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수진(背水陣)을 쳐서 이겼다.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신 립은 한 신을 본받아 배수진을 쳤다가 군대가 전멸당하고 말았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안됐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병법을 무시했는데 이겼고, 한 사람은 앞 사람과 똑같이 따라 했는데 무참히 졌다. 한 신은 원리로 싸웠고, 신 립은 표현만을 본받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정신을 본받되 표현은 본받지 말라”

‘상동구이’(尙同求異)의 정신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같아지려고 하되 다름을 추구하라는 말이다. 같은 것은 정신이고 원리다. 그러나 거기에 담기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의 목소리, 나의 개성이어야 한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홍길주(洪吉周)가 말했다. 이웃의 노인



옛 사람들이 생각한 좋은 글이 무엇인지는 박충원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보면 박충원은 뜻을 세우는 일이 문장을 쓰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글쓰기 기술만 전수하는 오늘날의 작문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연히 드러내주는 말이다. 사진은 《어우야담》.

이 건강히 장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장수할 수 있겠구나 해 그 노인처럼 고기를 뺏아서 먹고 밥 대신 미음만을 먹는다면, 내가 얻는 것은 노인의 장수가 아니라 노인의 늙음일 뿐이라고 말이다.

옛 문장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지 옛 글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옛 문장론이 전하는 글쓰기의 원리는 여전히 필필 살아 있다. 힘이 있다. 단순히 뒷받침 문장과 소주체문의 관계를 논하고, 두팔식·미팔식의 효과를 따지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호소력이 있다. 문제는 생각의 힘에 있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안목 없이는 우리는 글 한 줄도 쓸 수가 없다.●